

전남·전북·경남·경북 '영호남 상생' 손잡다

4개 도지사 광양서 '지역발전협력 공동선언' 발표

윤장현 시장, 이원중위원장에 지역 상생 지원 요청

민선 6기 전남도를 비롯해 전북, 경남, 경북 영·호남 4개 도 도지사들이 12일 광양시에 모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중)와 '지역발전 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영·호남 4개 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중 위원장과 개별적으로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전남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전남도 발전 협력 공동선언'을 통해 주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는 'HOPE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전남도를 '청년이 돌아오는 생명의 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지역발전위원회는 12일 "4개 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동서화합 차원에서 광양시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통합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특강하고, 이후 지역발전위가 지역발전정책을 설명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전남도정의 목표는 경제·사회적으로 활기차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더욱 매력적이며,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관련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원중 지역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은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역발전 협력 공동선언을 계기로 지역발전위원회와 시·도 간 더욱 협력하는 체계를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지역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생활권 정책, 특화 발전 프로젝트 등과 관련 시책사업 발굴, 국비 확보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을 방문한 이원중 위원장에게 '광주-전남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또 광주 송암산단에 건립 예정인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 건의 및 청

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전달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윤 시장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나눴다"면서 "윤 시장의 건의 내용이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민통합위원장 화개장터 방문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2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를 방문해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도경제 살리기' 중앙부처도 적극 나서

청사 구내식당 식자재 구매

추석선물 농특산물 사주기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객 급감, 농수축산물 판매 저조 등으로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진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남도는 물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진도산 농수산물 구매 및 직거래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진도군청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진도경제 살리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도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각 부처 장관과 산하 기관장의 추석 선물로 진도 농수특산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러 지난 7일부터 서울, 과천, 대전, 세종 등 4개 정부청사 관공소 구내식당에 진도산 쌀·멸치·미역·다시마·김 등 5개 품목을 식자재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3일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진도 농수특산물 판매전을 개최하고, 안전행정부 지정 정보화마을 누리집에 진도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도 추석을 앞두고 진도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고양시 하나로마트, 서울시청 광장 나눔장터 등 진도 농수산물 특별판매전,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생 진도 현장학습 추진, 도 주관 각종 행사 및 회의 진도 개최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민선 6기 대규모 인사 단행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6기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시는 12일 박득서<사진>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을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3~8급 169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전남도도 이날 4급(서기관급) 5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했다. <명단 22면>

광주시는 이번 이번 인사에서 '승진후보자 다면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시는 조만간 전보 인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에서는 지난해 과장직위 직무대리로 보임된 장영식 회계과장과 김경호 스포츠산업과장, 한동희 의회사무처 기획사 회수석전문위원, 나정수 국제통상과장 등

13명이 서기관으로 직급 승진했다. /윤현석·박진표기자chadol@

법원행정처 차장 강형주

대법원은 지난 11일 대법관에 임명 제정된 권순일(55·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으로 강형주(55·13기) 인천지법원장을 신규 보임했다고 12일 밝혔다.

강형주 신임 차장은 함평 출신으로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문순테 칼럼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손자한테서 전화가 왔다.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이라는 영화를 감상했는데 엄청 재밌다면서, 할아버지도 꼭 보라는 것이었다.

폭탄제조 기술자 알란은 100회 생일 잔치를 앞두고 요양원을 탈출, 뒷방에 갇힌 검은 돈을 손에 넣고 도망쳐 다니면서 다이아몬드 여정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다.

"할아버지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일러처럼 여행도 다니세요."

이 소설을 읽고 있다는 손자의 전화를 받고 나는 부라부라 서점으로 달려갔다. 손자는 소설을 읽고 나면 어김없이 내게 시시콜콜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손자는 소설가인 할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소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할아버지 노릇하기 정말 힘들다.

하여튼 나는 올 여름 손자 덕분에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장편소설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을 읽었다. 이 소설은 늙어서 삶의 여운을 갖게 해주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다.

어진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1597년 당시 조선의 위기와 2014년 대한민국의 시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지켜줄 진정한 리더십의 출현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의 죽음으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 쓸어내리며 분노하고 슬퍼하고 불안에 떨었는가. 세월호 참사 120일째인 오늘까지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과 '관피야'를 적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 일병 사건으로 드러난 수많은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전히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듯 불신과 불통 사회에서, 우리가 이순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기희생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진정한 리더십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

물속에 가리앉은 배 속에서 실려달라고 외쳐대는 소리를 외면한 책임자들. 참고 있으면 윤 일병처럼 맞아 죽고 폭발하면 총을 쏘는 임 병장이 될 수밖에 없는 원시적 병영문화가 엄존한 대한

'명량'과 '도망친 100세 노인'

주인공 알란이 세계여행을 떠나며 벌이는 좌충우돌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등 예측불허의 경험을 한다.

많은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즐거움을 한껏 만끽한다.

지금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에는 노인이 7명 중 1명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 때쯤이면 누구나 요양원의 비닐 위에 손발이 묶인 채 누워, 이상한 주사를 맞으며 아무 생각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이대로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

아름다운 인생의 종말을 맞이 위해서는 노인에게도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인생은 열정이 살아있을 때만이 생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전화에서 손자에게 영화 '명량'을 관람한 이야기를 했다. 이순신 장군이 겨우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배를 쳐 부신 이야기와 함께, 목숨을 바쳐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해주었다.

나는 '명량'이 예술적으로 잘 만들

민국. 이 현실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는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과 책임질 줄 아는 것임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다.

"할아버지 왜 지금은 이순신 같은 장군이 없어요? 이순신 같은 장군이 있으면 좋을 텐데..."

손자의 물음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손자는 영화 '도망친 100세 노인' 관람객 대부분이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명량'은 40~50대와 노인들이 많았다.

두 영화에 대한 손자와 할아버지의 관점은 무엇일까. 두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두려움'이다.

'도망친 100세 노인'에서 알란은 "세상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명량'에서 이순신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손자는 영화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알란처럼 즐겁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랐다면, 70대의 나는 이순신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손자들 세상에서 세월호 참사나 군부대 안에서 맞아 죽는 일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소설가>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금지원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당시 구비서류

- 사실경제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사명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로예회관

- 사랑의 물도리쌀 500가마
- 희망 장학금 2,400만원
- 소화기 100대
- 독거노인 소화기 100대
- 다문화 가정 지원

광주지역 자산 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전체 평균금고 3.5%)

본점 671-5000
주유사업소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서양새마을금고